

2017년 9월 18일, 한경면 용당리 부순여 씨 덕, 이효순 조사.
부순여(여, 1928년생, 한경면 용당리)

- 줄거리: 일가 친족들과 제사 집에 가는 길이었다. 갑자기 불빛이 다가오자, 한 어른은 도깨빚불이라 하고 다른 어른은 자전거가 지나간 것이라고 하였다. 그러던 중에 신창 소나무밭에 큰 불이 났다. 다음날 아침에 보니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도깨빚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.

[제보자] 옛날 외삼촌네가 신창 살주기. 김칩이. 경 허난 우리 고산 이모네 두 어른허고 우리허고 족은이모네허고 가명 넘어가난 불싼 빌빌빌 와. 고산 이모가

“저건 도체비여, 도체비여.”

“무신 도체비가 이제 납니까?”

도체비가 오단 호랑도 하고 그런 디 쏙 들어가. 자전거가 그게 어디 들어가겠나.

“자전거 아니여. 도체비여.”

경허당 들어가난 높은 소낭빚이난 불 와랑와랑 헨게. 아이고, 소방차 세운 디 거기 보난 불이 와랑와랑 해. 뒷날 아침이 보난 불 난 건 아무충도 안 해.

[조사자] 불 안 난마씨?

[제보자] 아니 난. 헛불 난. 도체비가 경 불 낸 생이라. 다음날 보난 아무것도 아니.

- 핵심어: 도체빚불(도깨빚불), 도체비(도깨비), 자전거, 소낭빚(소나무밭)